

# 「東廂記」의 형성과정과 주제인식

심재숙\*

- I. 머리말
- II. 「동상기」의 형성과정
- III. 문제적 현실인식과 축제적 해결의 구도
  - 1. 갈등의 설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적 현실인식
  - 2. 결말방식에서 드러난 축제적 해결방식과 그 한계
- IV. 맺음말

## I. 머리말

현전하는 문헌기록에 의하건대 우리나라의 연극과 연희문화는 삼국시대부터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치원의 鄕樂雜詠에 보이는 五伎라든가, 중국인들이 지칭한 高麗伎, 그리고 일본의 예능 문화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미친 高麗樂, 伎樂 등이 그것이다.<sup>1)</sup> 그러나 조선 초기 이후, 유교의 엄격한 규범이 전사회적 통제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연극의 발전은 크게 제약받았고, 더구나 연

\* 고려대 박사과정. 주요논문으로 <「소운전」-「월봉기」계 작품군의 유형 변이와 담당층에 대한 연구> 등이 있음.

1)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6.

회의 다양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상업의 발달이 뒤늦게 이루어짐에 따라 더욱 그렇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탈춤, 꼭두각시놀음 같은 연희가 발달하여 왔으나, 그나마 문헌기록으로 정리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고려할 때, 「동상기」의 연극사적 의의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동상기」는 1791년 汶陽散人이라는 작가에 의해 한문으로 창작된 희곡으로, 현존하는 최초의 희곡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상기」의 이와 같은 연극사적 가치에 비하면,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만큼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고 할 수 있다. 「동상기」 연구는 문학사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는 정도로만 논의되다가 김학주가 「서상기」와의 관계 속에서 「동상기」를 분석한 이래 박선영에 의해 그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2)</sup> 「동상기」 연구의 주요한 쟁점은 갈래, 작가, 독자성, 주제의식 등의 문제였는데, 갈래 문제는 작가 자신이 ‘극’을 쓴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 작품을 썼으며<sup>3)</sup> 또한 희곡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식적인 측면(등장 인물이 있고 무대가 있으며, 지문에 해당하는 ‘科’, 대사에 해당하는 ‘白’과 ‘唱’)은 충족되었다고 보여지므로 희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통설화되었다. 그러나 갈래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여기서 간단

2) 김학주, 「讀 <東廂記>」, 『아세아연구』 8권 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5.

박선영, 「<東床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3) 「동상기」에는 작가 자신의 창작의 변인 ‘金申賜婚記題辭’가 작품의 앞부분에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린 종이 시장에서 돌아와 소문을 전하는데 무척 신기한 것이었다. 나의 한가함을 이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붓을 놀려 희곡 한편을 지으니 그 한편에 게으름이 달아나고 졸음도 달아나게 되었다.”(“小奚歸自市說所聞甚新曰奇矣盛矣吾可筆已吾閑起弄筆作劇一篇覺手稍開眼稍楷”)라고 하는 언급이 있어, 작가 자신이 ‘극’을 쓴다는 의식을 가지고 「동상기」를 지었음을 보여준다.

히 연구사를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본고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작가 문제.

기왕에 「동상기」의 작가로는 문양산인, 이덕무, 이옥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작가 이덕무설은 「김신부부전」을 지은 이덕무가 「동상기」도 지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에서 비롯된 것인데, 「김신부부전」과 「동상기」의 내용에서 확인되는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와 이덕무 자신의 개인사를 고려할 때 그 개연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 무방하다. 4) 박선영은 가람본 「청구야담」에 실려 있는 「동상기」에 “完山 李鉉 著”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작가 이옥설을 주장하였다. 그는 작가 서문에 해당하는 「金申賜婚記題辭」의 내용과 이옥 년보의 내용을 비교한 결과 상당 부분이 서로 일치한다는 점과 「동상기」 작가의 별호로 생각되는 梅花宕癡農과 이옥의 별호인 梅花外史가 매화를 소재로 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옥을 「동상기」의 작가로 거의 확정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짙다. 박선영의 작가 이옥설은 그 개연성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마련한 가람본 「청구야담」의 자료적 가치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작가 이옥설은 다시 검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가람본 「청구야담」은 지면이 원고지 형태인 것으로 보아 1900년대 이후에 필사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구야담」 이본 중 가람본에만 「동상기」가 실려 있고 「동상기」 이본

- 
- 4) 「김신부부전」과 「동상기」는 김희집의 혼인이라는 동일한 소재를 내용으로 한 작품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주인공이 사는 동네의 이름이 「김신부부전」에서는 반석, 반송리로 되어 있는데 비해 「동상기」에는 이문동, 평위동으로 되어 있으며, 주인공의 신분설정도 「김신부부전」에는 서얼로 되어 있는데 비해 「동상기」에는 몰락양반으로 되어 있다. 두 작품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차이로 보아 두 작품이 동일한 즉 이덕무에 의해 창작되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덕무는 서얼출신이라 억눌려 지내야만 하는 처지였지만 정조가 체제안으로 끌어들여 규장각 검서관으로 발탁해서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었던 인물로, 정조의 문체반정에 동조하여 개혁적인 문체와 소설을 배격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가운데 유일하게 이 본에만 작가가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이로 보아 '완산 이옥 저'라는 기록은 가람본 「청구야담」 필자 개인의 추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므로 본고는 작가를 단정하기 보다는 작품에 밝혀진대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문양산인의 작으로 보고 작품을 분석하기로 한다.

둘째, 「동상기」의 독자성 문제.

「동상기」는 「서상기」와 제명이 유사함으로 하여 일찍부터 「서상기」와의 상관성이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의 정점을 이루는 것이 김학주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김학주는 「동상기」가 元曲의 체제를 모방하였으나 그 체제도 제대로 갖추진 못한 저열한 작품이라고 혹평하였다. 이에 비해 박선영은 「동상기」가 원곡의 형식을 모방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동상기」에서 독자적인 특색을 찾고자 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각 절의 처음에 등장한 인물이 길게 늘어 놓는 사설은 아니리로 시작하여 앞으로 전개할 창 의 내용에 대한 소개를 하거나 예비지식을 제공하는 판소리의 도입부와 유사하며, 서술-창-서술-창의 반복구성은 판소리의 아니리-창-아니리-창의 형태와 비견될 만하다고 하는 것 등이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동상기」의 첫대목이 그러한 특성을 보이는 것은 원곡의 첫머리에 오는 引子曲이 본래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지 아니리로 시작되는 판소리의 도입부를 수용한 결과는 아니며, 원곡의 서술과 판소리의 아니리는 기본적으로 그 기능이 다르다는 점에서 무리한 추론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동상기」가 원곡 특히 「서상기」의 형식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 명백한 이상 형식적인 면에서 「동상기」의 독자적인 특색을 찾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sup>5)</sup> 이제 「동상기」의 독자성을 탐색하는데 있어서 균형잡힌 시각

5) 「동상기」의 형식은 元曲의 一本四折의 체제와 唱·科·白의 3요소로 이

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사정이 이러할 때 「동상기」의 독자성에 대한 논의의 보다 생산적인 방향은 그 형식적인 면에서 찾는 쪽보다는 내용의 측면에서 찾는 쪽이라 여겨진다. 이 작업은 당대 사회의 문학적 전통에 대한 폭넓은 분석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제의식의 문제.

「동상기」의 주제의식에 대한 논의는 극히 소략하다. 「동상기」의 주제의식은 결혼을 하지 못한 노총각의 내면세계에 초점을 두고 그의 한탄과 심정의 토로를 통해 남녀의 결합이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독자나 관객에게 인지시키고자 한 것으로, 결혼을 주제로 한 희극적 작품이라고 한 박선영의 논의 정도가 전부이다. 이러한 분석이 겉으로 드러난 사실을 포착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상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결혼이란 문제를 초시대적·초계층적인 것으로 다룸으로써 특정한 시대적·계층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 결혼에 얽힌 이야기를 지나치게 일반화시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동상기」는 당대 현실 문제의 특정 양상과 측면을 나름대로 진지하게 문제삼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18세기 후반 당대의 역사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주제의식을 파악하는 태도가 요청된다 하겠다.

본고는 이상의 연구사적 쟁점을 검토하는 가운데 제기된 문제에 바탕하여, 먼저 「동상기」의 내용이 형성되는 과정을 추론함으로써 「동상기」의 독자적 특성을 밝히고 다음으로 갈등의 설정과 그 해결 방식의 의미를 검토함으로써 「동상기」의 주제의식을 밝혀보고자 한

---

루어진 것이어서 원곡의 형식을 모방한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동상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원곡은 「서상기」이본 가운데 가장 많은 변개가 있었다는 김성탄의 第六才子書인데 「동상기」와 김성탄의 「서상기」는 형식상으로 거의 동일하다. 심지어 둘의 제1절은 賞花時-後-點絳脣-混江龍까지의 曲牌의 순서가 동일하며, 상화시의 경우에는 用韻도 거의 유사하다. 이런 점으로 보아 「동상기」가 원곡 특히 「서상기」의 형식을 수용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 「동상기」는 정신문화연구원 소장본을, 「김신부부전」은 「雅亭遺稿」에 실려 있는 것을 대본으로 한다.<sup>6)</sup>

## II. 「동상기」의 형성과정

이덕무의 「김신부부전」과 문양산인의 「동상기」는 정조의 賜婚으로 혼인하게 된 노총각 김희집과 노처녀 신씨 처녀의 이야기로, 1791년 실재했던 사실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sup>7)</sup> 동일한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기는 하였으나 내각 검서 이덕무가 왕의 칙명을 받고 지은 「김신부부전」이 경험적 사실을 충실히 재현한 것이라면,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한 작가가 하인에게서 전해들은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 여러 요인들을 다양하게 수용함으로써 재창조된 것이 「동상기」이다.<sup>8)</sup> 그러므로 두 작품을 비교하여 중복되는 이야기가 실재했던 경험적 사실에 해당한다면 그렇지 않은 부분은 「동상기」 작가에 의해 덧붙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작품의 핵심단락을 순차적으로 대비시켜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6) 국립도서관본 「동상기」는 무전 학술부에서 펴낸 『동상기 해설 번역 원본자료』(중문출판사, 1990)에, 「아정유고」 소재 「김신부부전」은 이가원 교주의 『이조한문소설선』(교문사, 1984)에 실려 있다.

7) 正祖實錄 권32(15년辛亥6월)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어 김희집의 혼인에 얽힌 이야기가 실재했던 사실임을 보여준다.

五部進勸婚男女別單凡二百八十一人幼學申德彬女幼學金喜集議婚特命戶曹判書趙鼎鎮宣惠提調李秉模備資裝說宴牢以成之命各屬官能文者作傳記其事

8) 「김신사혼기제사」에 보면 “다행히 이 글을 보는 사람이 있거든 사건의 와전 여부를 묻지 말고, 문장의 체제도 묻지 말 것이며, 지은이가 누구인지도 묻지 말았으면 한다.(幸有看官勿問事之或訛勿問文之爲何體亦勿問作者之爲誰)”라는 작가 자신의 창작의 변이 있는데, 이를 통해 보면 「동상기」 작가는 경험적 사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경험적 사실을 윤색함으로써 작가의 세계관을 전달하는데 더욱 관심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신부부전」	「동상기」
1	김희집과 신씨 처녀가 늙도록 혼인하지 못함	김희집이 가난하여 혼인하지 못함을 한탄함
2	정조가 칙명을 내려 관자로 노총각·노처녀를 혼인시키도록 함	동네임장이 관자로 노총각·노처녀를 혼인시키려 한다는 왕의 칙명을 전달함
3	없음	오부의 아전들이 노총각·노처녀를 혼인시켜 준 왕의 성덕을 칭송함
4	김희집과 신씨 처녀는 각각 다른 사람과 약혼하였으나 파혼당함	오부의 아전이 김희집과 신씨 처녀가 파혼 당한 사실을 전달함
5	정조의 명으로 김승훈, 윤영이 매파가 되어 김희집과 신씨 처녀의 혼인을 성사시킴	호조서리가 왕의 명으로 김희집과 신씨 처녀를 혼인시키기로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함
6	호조판서 조정진과 선혜청 당상관 이병모가 각각 두 사람의 부모가 되어 혼인을 준비함	호조서리와 선혜청 서리가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을 노래함
7	조정진과 이병모가 쓴 납폐의 글과 답혼서	없음
8	없음	동네 총각 세 명이 김희집을 동상례함
9	이덕무의 논찬	김희집이 왕의 성덕을 칭송하는 시를 노래함

여기서 보면 「김신부부전」에는 있는데 「동상기」에서 생략되고 있는 단락은 ⑦단락의 납폐의 글과 답혼서이다. 「김신부부전」은 조정진과 이병모가 썼다는 납폐의 글과 답혼서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고 있는데, 이는 「김신부부전」이 경험적 사실을 충실히 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경험적 사실을 새롭게 윤색하고자 했던 「동상기」 작가가 이 부분을 생략한 것은 당연하다. 다음으로 「김신부부전」에 없고 「동상기」에만 있는 단락은 ③, ⑧

단락인데, 이 중 ③단락은 「김신부부전」에 전혀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김신부부전」에서는 ③단락의 내용이 동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혹은 조정진과 이병모의 납폐의 글과 답혼서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김신부부전」과 「동상기」의 가장 큰 차이는 ⑧단락의 동상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sup>9)</sup>

그런데 민간설화 가운데 ‘동상례의 유래’ 설화라는 것이 「동상기」와 상통하는 점이 있어 주목된다.<sup>10)</sup> ‘동상례의 유래’ 설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채정승 왕희지가 조선의 왕에게 절하기를 강요하던 중국 칙사를 혼내 준다.
- ② 채정승에게 딸이 하나 있어 사위를 구하자 사람들이 서로 그 집의 사위가 되려 한다.
- ③ 가난한 총각은 채정승의 사위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동쪽의 평상에 누워 잔다.
- ④ 채정승이 평상 위에서 자고 있는 가난한 총각을 보고 그 인물됨됨을 알아보아 사위로 삼는다.
- ⑤ 부잣집, 세력 있는 집 사람들이 그 가난한 총각에게 동쪽 평상에 누워 있다 정승 사위가 됐으니 동상례를 내라고 하여 시작된 것이 동상례의 유래이다.

이 설화는 동상례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밝힌 유래담이다. 그런데 전반부의 이야기는 조선의 왕에게 절을 강요하던 중국 칙사를 채정승이 혼내주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으로,

9) 동상례란 친척과 여러 벗들이 신랑을 잡아 다리를 묶어 거꾸로 매고 몽둥이로 발바닥을 때리면서 음설된 말로 물으며, 떼와 억지를 써서 마칩 내는 주찬을 뜯어내는 풍속을 말한다(『조선여속고』, 이능화 지음·이재곤 옮김, 동문선, 1992). 「동상기」는 바로 동네총각들이 김희집을 동상례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10) ‘동상례의 유래’ 설화는 『한국구비문학대계』 8-1, 336에 실려 있다.



본래의 이야기 줄거리와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래의 이야기는 가난한 총각이 채정승의 ‘知人之鑑’으로 막강한 적대자인 권세가의 자식들을 제치고 정승의 딸과 혼인하게 되었고, 그 결과 부귀라는 사회적 특권까지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상례는 이처럼 가난한 총각이 혼인을 통해 사회적 가치까지도 획득하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동상례의 유래’ 설화에 나타나는 혼인의 의미를 인간의 원초적이고도 소박한 바람을 표현한 것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혼인이라는 형식 이면에는 사회적인 특권적 가치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혼인이라는 형식을 통해 사회적 가치들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동상례의 유래’ 설화는 혼인을 통해서 사회적 특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민중의 소망을 드러낸 것이며, 동상례라는 의식은 그러한 소망을 담고 있는 풍습이라고 하겠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동상기」에서 가난때문에 늙도록 혼인하지 못한 노총각 김희집이 왕의 賜婚으로 혼인하게 되었다는 것이 경험적 사실이라면, 동상례라는 극적 장치를 통해 가난한 노총각이 혼인함과 동시에 가난까지도 극복할 수 있었음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동상기」 작가에 의하여 윤색된 부분이다.<sup>11)</sup> 그런데 그렇게 윤색된 부분이 ‘동상례의 유래’ 설화와 상통하는 점이다. 말하자면 「동상기」와 ‘동상례의 유래’ 설화는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혼인이라는 지향가치가 단순히 남녀의 결합이라는 소박한 소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삶 속에서 배태된 모든 願望의 표현이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의미의 혼인에 대한 열망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기 위

11) 실재했던 사실에 의한다면 왕의 賜婚으로 마침내 혼인을 하게 되기는 하였으나 가난한 현실은 그대로 남아 있는 문제이어야 한다. 그런데 「동상기」에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부를 획득하게 되었는가는 제시하지 않은 채 혼인한 이후의 김희집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해 동상례를 끌어들이고 있는 점에서 서로 상통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볼 때 ‘동상례의 유래’ 설화는 적어도 「동상기」 창작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하자면 「동상기」는 김희집의 혼인에 얽힌 이야기-경험적 사실-를 먼저 수용하고, 다시 몰락양반으로서 이를 수 없었던 현실적 가치의 성취에 대한 욕망을 최대한 극적으로 부각시키고자 ‘동상례의 유래’ 설화의 골격을 조합시킴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 밖에 「동상기」에는 두 편의 설화와 한 편의 가사가 사설의 내용으로 수용되어 있는 바, 이로 보아 각종 민간 설화나 민간 가요가 「동상기」에 나오는 상당한 양의 사설의 소재적 원천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1절 김희집의 첫 대사에는 가난한 노총각의 혼인 이야기가 두 편 수용되어 있다. 먼저 가난한 늙은 도령이 미륵을 공양하여 물건을 붙게도 하고 떨어지게도 하는 진언을 얻어 남의 집에 시집가는 각시를 탈취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미륵과 장기 두어 장가 든 사람’ 이야기와 거의 유사하다.<sup>12)</sup> ‘미륵과 장기두어 장가 든 사람’ 이야기는 노총각이 잡초와 먼지에 뒤덮여 있는 미륵을 깨끗이 닦아준 뒤 미륵이 지면 장가 보내주기로 하고 미륵과 내기장기를 두어 이겼는데 그날 밤 꿈에 미륵이 나타나 어디로 가면 색시를 얻을 것이라 말하여 주어 색시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동상기」에 수용된 설화와 ‘미륵과 장기 두어 장가 든 사람’ 이야기는 미륵을 공양한 노총각이 미륵의 도움으로 장가들게 되었다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동상기」에 수용된 또 한 편의 설화는 팔십 먹은 평민 노총각이 나이와 신분을 속이고 혼인하였다는 이야기인데, 이와 유사한 내용의 민간설화가 ‘거짓말 해서 장가 든 이야기’이다.<sup>13)</sup> ‘거짓

12) ‘미륵과 장기 두어 장가 든 사람’ 이야기는 『한국구비문학대계』 1-2, 58쪽에 실려 있다.

13) ‘거짓말 해서 장가 든 이야기’는 『한국구비문학대계』 1-8, 108쪽에 실려 있다.

말 해서 장가든 이야기'가 나이와 신분이 아니라 富를 과장하여 거짓말함으로써 장가들 수 있었다는 차이는 있지만, 거짓말로 여자집을 속여 결혼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동상기」의 사설 가운데는 한 편의 가사가 수용되어 있는데, 병신이어서 시집을 가지 못하고 나이 선이 넘도록 시집못간 것을 한탄하던 노처녀가 혼인날자를 잡고 즐거워한다는 내용의 가사작품인 「노처녀가」가 그것이다.

얼마전에 한 노처녀가 요행히 혼처를 구해서 사주단지 택일단지 오락가락 혼인일자가 점점 다가오는데 그 처녀 기쁨을 참지 못하나, 체면 찾아 참고 참아 사람에게겐 말 못했다네. 더 참을 수 없어서 변소로 달려가 개를 불러서 가만히 말했다네. 개야, 내가 모레면 시집간단다. 개가 어찌 알아채리요. 다만 개가 하품만 한번 하니 그 처녀 민망하여 또 개를 보고 말하였다네. 개야 내가 너에게 거짓말을 할 것 같은 딸년이다.(「동상기」 제2절)<sup>14)</sup>

부모들도 의논하고 동승들도 의논하여/ 김도령과 의논하니 첫마디의 디논고나/ 혼인턱일 갖가오니 영덩춤이 절노논다/ 줌어귀를 불근 쥐고 종종거름 보살피며/ 삼살기 귀의되고 넌즈시 니른말이 나도이제 시집간다/ 네가뵈끔 씨던날의 원슈갓치 보와더니/ 오날이야 너를보니 니별홀날 머지안코 밥줄사름 나뿐이라 (「노처녀가」2)<sup>15)</sup>

위의 두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요행히 혼인날자를 받은 노처녀가 한날 짐승에 불과한 개에게까지 그 기쁨을 전하려 한다는 상황설정이 「노처녀가」의 그것과 동일하다.<sup>16)</sup>

14) 曾前一個老處女僥倖得了婚處四柱來了擇日去了婚姻日子看看迫了那處女不耐喜歡猶是體面所在十分忍住不得向人說道奈忍住無路走了廁間呼了犬兒暗暗詫道犬兒俺也再明去了媿家那犬如何採得只打了一番呵嚶那處女悶悶又道俺若荒說爾時俺也是爾的女息了

15) 김문기, 『서민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83, 231쪽.

16) 다만 「노처녀가」의 노처녀가 병신이어서 늙도록 혼인하지 못한 것으로

이상에서 「동상기」의 사설이 민간설화, 민간가요 등에 그 뿌리를 둔 것임을 확인함으로써 내용의 형성과정은 어느 정도 밝혀진 셈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언어표현적 측면에서 「동상기」의 형성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동상기」는 한자로 표기되기는 하였으나 전통 한문의 표기 방식이 아닌 백화체식 구어체를 기조로 하면서, 아가씨(阿只氏), 저고리(赤古里), 가시나(佳酸兒), 하품(何品) 등의 생활어휘나 ‘가난이 용천을 더럽힌다(艱難醜龍泉)’, ‘야차에 세미 마련이며 웅기장사의 계산이다(夜叉兒稅米磨鍊甕器場師數)’와 같은 속담을 어구상에 대폭 수용하고 있다. 「동상기」는 당초 한자로 표기함으로써 일상 구어와는 거리가 멀 수 밖에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문장을 평이하게 엮어나가면서 친근한 생활어를 대폭 수용함으로써 작품 내용을 생활과 밀착시켜 풍부하게 해 주고 ‘조선적 정조’를 살리는 효과를 낼 수 있었다.

그런데 「동상기」의 언어표현적 특질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동상기」가 익살스러운 재담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전통극의 재담적 문체와 장황한 묘사를 통해 현실을 보다 사실적으로 그리려는 판소리의 묘사적 문체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장 : 김도령, 빨리 자네의 성명, 본관, 나이를 적어 주소.

김희집 : 무슨 까닭이요?

임 장 : 관가 공문에 이르기를, 늙은 도령한테 있으나마나한 물건을 그에게 두어서는 쓸 곳이 없으니, 일일이 적은 후에 잘라서 나처럼 소주 먹는 동네 임장에게 주어서 생희 안주나 삼으라고 했다네.

---

되어 있는데 비해 「동상기」에서는 가난하여서 늙도록 혼인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변개는 가난 때문에 혼인하지 못하는 몰락양반의 현실을 다루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에 맞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김희집 : 농담 그만하시오. 진실로 적어 가는 것이 무슨 연고요?17)

총각 1 : (웃는다) 자네가 말을 타고 처가에 도착할 때에 말머리가 먼저 들어갔는가, 자네의 머리가 먼저 들어 갔는가?

김희집 : 그야 말머리가 먼저지.(여러 사람이 크게 웃는다.)

총각 1 : 자네가 곧바로 말에서 내린 뒤부터 합궁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자세히 아뢰게.

김희집 : 살려주게, 살려주게. 제발 덕분에 살려주게.

총각 1 : 자네 온몸이 조정의 덕분이거늘, 자네가 마음을 내어서 언강 생심 살려 달라고 비는가? 매우 처라.

총각 3 : (때린다.)

김희집 : — 신방에 이르러 상회례를 치루고 신부는 당일 신부례를 치루고 그대로 돌아가니 나는 저녁밥을 잘 먹고 잘 잤도다. 빌고 또 비니 풀어주오.

총각 1 : 자네가 합궁절차를 언강생심 빼먹으려고 하는가? 빨리 자세히 말하라.

김희집 : 내가 저녁 먹은 후에 신방에 들어가니 — 내가 머리 들어 자세히 보니 얼굴이 안보이네. 원래 아까 절한 내 아내로다. 붉은 치마 벗기고 푸른 옷 벗기고 은비녀 뽑고서 속옷 벗기고 잘 잤노라.(크게 웃고 말하지 않는다.)18)

앞의 인용문은 관자로 노총각·노처녀를 혼인시키려 한다는 소식

17) (任掌)金都令火速將自己的姓名本貫年歲錄與小的哩(金)甚曲折(任)官家甘結內老都令有若無的物件置了他沒用處待了成冊後——割出付了如俺的做個生膾安酒者(金)休了面弄這眞實是個甚緣故

18) (大)(笑科)爾驛馬到了處家時馬的頭先入麼(金)馬的頭先入了(衆)(大笑科)(大)爾直從下馬時到了合宮時——通仔細招將來(金)死了死了乞了德分乞了德分(大)爾的全身都是朝家德分爾又生心乞人德分麼重打者(三)(打)(金)——到了新房行了相厚禮新婦仍作當日新婦禮回了俺好喫了夕飯好睡了乞解了乞解了(大)爾合宮節次生心這般闊略麼速速細細招將來(金)俺夕飯後入了一我擡頭細看面分不生原來我看拜我娘解他紅裙襖他綠衣抽他銀釵剝他裡衣好好睡了(大笑不言科)

을 전하러 온 동네 임장과 김희집의 대화이며, 뒤의 인용문은 동네 총각들이 혼인한 김희집을 동상례하는 내용이다. 두 인용문은 性을 대상으로 노골적이고 익살스러운 재담을 구사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전통극의 문체적 특질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재담은 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비속한 모습을 띄고 있기도 한데, 이는 「동상기」가 하층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극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sup>19)</sup> 경직된 유교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상층의 인물을 완전히 배제하고 하층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극이 진행되기 때문에 「동상기」는 익살스럽고 노골적인 비어와 재담을 거리낌 없이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동상기」는 전통극의 발랄함을 획득할 수 있었다.

신랑처럼 살펴보세. 신랑이 어리지 않으니 가늘고 가는 양대 검은 갓이고, 세모시 청도포, 세모시 중치막, 흰모시 소창의에 생명주 홀적 삼이며 초록 비단허리띠에 두록대단 두루주머니에 주황색당사로 나비 모양 수술 달았네. 흰모시 겹잠방이, 가는 베 속옷 홑잠방이, 가늘게 짠 무명 새 버선, 흰모시 통행전, 초록비단 가는 대넙, 홑끝 망건, 붉은 대모판자, 자주색비단끈, 은색 가죽 바탕에 사슴가죽 명주색신 등 모두 준비하였으니 무슨 걱정 있으리오. 겹비단 사모에다 자주색 비

19) 「김신부부전」과 「동상기」는 등장인물의 신분이 상이한데, 「김신부부전」이 정조, 한성 판윤 구익, 서부령 김승훈, 주부 윤영, 호조판서 조정진, 선혜청 당상 이병모, 내각 검서 이덕무 등으로 상층에 속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데 비해 「동상기」는 동네임장, 오부아전, 호조서리, 선혜청 서리, 동네 총각 등 하층의 인물들에 의해 극이 진행된다. 단적인 예가 김희집과 신씨 처녀의 혼인을 준비하는 인물이 「김신부부전」에서는 호조판서와 선혜청 당상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동상기」에서는 호조서리와 선혜청 서리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직접 혼인을 준비한 인물은 호조판서나 선혜청당상과 같은 상층이었기보다는 호조서리, 선혜청서리 같은 하층이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동상기」의 인물설정은 「김신부부전」에 비해 사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관대, 검은사슴 가죽신, 관대안에 자주색 겹창의, 푸른색 삼대승두 선이니 극진하고 극진하다.<sup>20)</sup>

「동상기」의 언어표현적 특질로 주목되는 또 하나는 판소리의 묘사적 문체가 상당히 많이 수용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제3절의 혼수를 준비하는 과정에 나오는 신랑·신부·신방·잔치음식 등의 차림새에 대한 묘사는 반복과 나열을 통해 장황하게 혹은 과장하여 상황을 묘사하는 판소리 특유의 문체 그대로인데, 위의 인용문은 그 가운데 신랑의 차림새를 묘사한 사설에 해당한다. 등시적 반복과 나열이 가져오는 흥겨움은 삶의 새로운 전기를 맞은 김희집의 앞에 새롭게 전개될 세계의 구체적 모습에 대한 기대와 김희집의 기쁨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요컨대 「동상기」는 전통극의 재담적 문체와 판소리의 묘사적 문체를 수용하고 있는데, 이는 「동상기」가 그 창작 시기를 전후하여 활발하게 연회되면서 영향력을 증폭시켜갔던 판소리·탈춤 등 전통극의 파장에 이끌리게 된 결과라 하겠다.

이상에서 「동상기」의 형성과정을 내용적 측면과 언어표현적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동상기」는 민간설화·민간가요 등에서 소재를 얻어 사설을 이루고, 전통극의 재담적 문체, 판소리의 묘사적 문체 등 전통극의 언어표현적 특질을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진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동상기」가 형식상으로는 元曲의 형식을 거의 그대로 모방했으나 내용 및 언어표현적 측면에서는 우

20) 新郎服着點檢者草笠已是不少了細細涼臺布笠兒銀色兒苧布靑道袍白苧布中赤莫白苧布小斃衣生綿袖汗衫衣赤衫漢布緞草綠腰帶豆綠大緞斗里囊子朱黃唐絲蝶樣流蘇白苧布復禪子細布裡衣單禪子細作白木新襪子白苧布筒行纏草綠唐絲細條帶單縷網巾玳帽圈子唐絲繫兒青黍皮六分地鹿皮縵色唐鞋一齊兒準備有甚偏入鼠皮脫禪衣的念慮麼復紗角兒烏紗帽紫的色紗冠帶一品秩犀角帶黑鹿皮好靴子冠帶內供紫紬敞衣三臺僧頭靑色扇極盡了極盡了

리의 문학적 전통을 수용함으로써 독자성을 획득한 작품임이 확인된 셈이다.

### Ⅲ. 문제적 현실인식과 축제적 해결의 구도

#### Ⅲ-1. 갈등의 설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적 현실인식

「김신부부전」과 「동상기」에 드러난 갈등은 노총각의 혼인에 대한 열망과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현실 사이의 갈등이다. 여인과 결합한다는 것은 모든 남성의 원초적이고 소박한 바람인데 현실은 그러한 소박한 바람마저도 실현될 수 없게 하는 것이어서 갈등이 유발된 것이다. 그런데 두 작품에서 확인되는 갈등의 설정은 동일하지만 작가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적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갈등의 설정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결과라면 구체적으로 드러난 문제적 현실의 차이는 동일한 소재에 접근하는 작가의 세계관적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두 작품에 드러난 문제적 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주인공 김희집의 신분 설정에서부터 비롯된다. 「김신부부전」의 김희집과 신씨 처녀의 신분은 각각 현감 사중의 서손 혹은 사인 덕빈의 서녀로, 당대에 굉장한 신분적 제약을 감수해야 했던 서얼이며 바로 이런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김희집은 혼인하지 못하고 있다. 원래 김희집은 노총각·노처녀를 혼인시키라는 왕의 칙명에 따라 약혼까지 하였으나, 약혼한 여자의 집에서 “문벌이 맞지 않는다 하여 부끄러이 여겨서” 딸을 출가시키지 않으려고 함으로써 파혼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sup>21)</sup> 「김신부부전」에서 노총각 김희집의 혼인을 방해하는 문제적 현실은 서얼이라는 신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런데 작가 이덕무의 개인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인식의 태도가 이해된다. 이덕무

21) “金禧集始與之約者誘以門戶不敵恥不以女女焉”



자신은 서얼 출신이라는 신분적 제약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억눌려 지내야만 했던 인물이다. 다행히 정조가 이덕무를 위시한 서얼 몇 사람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함으로써 이덕무는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으나 지위 상승에는 한정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sup>22)</sup> 그랬기 때문에 정조로부터 김희집의 이야기를 전으로 지으라는 명을 받은 이덕무는 자연스럽게 서얼이라는 김희집의 신분과 그로 인해 비롯되는 갈등에 주목하게 되었을 것이다. 즉 작가 이덕무는 김희집의 혼인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억눌려 지내야만 하는 서얼의 현실을 드러내고 그러한 문제적 현실이 왕의 성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혹은 해결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동상기」는 김희집과 신씨 처녀가 서얼임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혼인을 가로막는 원인도 신분적 제약 때문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제1절 김희집의 첫 대사를 인용해 보기로 한다.

대명천지에 집 없는 나그네요, 태백산 속의 머리 기른 중이로소이다. 저의 성은 김가요 이름은 희집이올시다. 집안 문벌과 대대의 계통은 경주 김가이나 쇠락한 집안이로소이다. 가까운 조상은 벼슬도 했고 높은 지위가 전해왔기 때문에 동네의 웃어른이나 아랫사람들이 모두 수재라고 불러 왔소이다. 그러나 집안 형편이 기울어 가난하게 되니 삼십 일 동안에 아홉 끼니밖에 먹지 못하고 십년 동안에 겨우 한번 갓을 쓰니 진실로 이것이 가난함을 즐기는 것 같은 삶이로소이다. 성 아래 작은 집은 계딱지처럼 좁고 좁습니다. 속담에 가난이 용천을 더럽힌다더니 과연 이몸이 가난한 까닭으로 어렸을 때는 배우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일할 데가 없어서 문반도 아니요 무반도 아니올시다. 제주도 없고 덕도 없는 채 어느덧 올해 나이가 스물여덟이나

2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권, 지식과 산업사, 1984, 202쪽.

되었소이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소위 장가라고 하는 것을 들기  
가 푸른 하늘에 오르기보다 어렵게 되었소이다.<sup>23)</sup>

여기서 보면 「동상기」의 김희집은 신분적으로 서얼이 아니라 한때 명문이었으나 이제는 몰락하여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른 몰락양반이며 혼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적 현실은 바로 몰락양반의 극심한 가난이다. 「동상기」 제1절은 몰락양반 김희집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인데, 혼인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기 보다는 혼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가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가난으로 인해 김희집이 감수해야만 하는 불이익은 혼인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벼슬까지도 할 수 없는 것에까지 나아간다. 김희집의 불만이 표면상으로는 혼인하지 못함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이면에는 공부, 벼슬과 같은 사회적 특권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갈등은 노총각의 혼인하고자 하는 열망과 가난한 현실 사이의 갈등이지만, 보다 근원적인 이면의 갈등은 혼인으로 대표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몰락양반의 열망과 가난한 현실 사이의 갈등이다. 그러나 몰락양반 김희집은 타성에 젖은 삶을 무기력하게 이어나갈 뿐 적극적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다. 변해버린 상황에 대하여 한탄만 하면서 신분과 경제적 처지에 있어서 몰락양반과 정반대로 역전된 처지라고 할 평민부자에 대하여 묘한 적대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제1절의 사설로 수용되어 있는 피로 장가 간 평민 노총각의 이야기는 “내가 앉

23) (金) (上) 大明天地無家客太白山中有髮僧賤生性金名禧集家世慶州金氏白邊冠冕不遠簪纓相傳洞內上下皆以金秀才呼稱但因家計倒烈也貧窮三旬九食十年一冠正是樂貧的生涯城底小屋蟹殼般也窄窄俗談艱難醜龍泉果然俺艱難所致早歲失學中年無業非文非武無才無德居然今年二十有八歲因此上所謂丈家難於上青天

은 자리가 흥문관 교리, 분향한림, 이조좌랑의 가세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어찌 다섯 대를 상놈으로 지낸 집안과 비기리요? — 저 상놈은 생각해보면 부자일 것이다. 나같은 놈은 술 한 잔 나올 데가 없으니 어느 중매장이가 덕을 보려고 나를 위해 힘쓰리요?”라고 하는 김희집의 언술로 마무리된다. 여기서 보면 김희집은 끼니 걱정을 해야할 정도로 가난하면서도 또한 가난때문에 그토록 고단한 삶을 감내해야 하면서도 평민부자와는 다르다는 양반의식을 버리지 못한 인물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평민부자가 지닌 부에 대하여 적대감과 질시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조선후기 야담집을 통해 보면 가난한 양반의 현실적 처지를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실려 있는데, 이는 가난한 양반의 존재가 이미 화제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당연시될 정도로 수많은 양반들이 재산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야담자료에 등장하는 몰락양반들은 변하는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세상에 이끌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히 가난한 몰락양반과 평민부자의 대결을 내용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수 발견된다.<sup>24)</sup> 이들 자료들에서 확인되는 몰락양반의 암울한 현실과 평민부자와의 대결상황은 조선후기 당대적 현실에서 필연적인 것이었다. 조선후기 화폐경제의 발달로 양반과 평민의 계층분화가 격화됨으로써 양반 속에서는 집권층에서 소외된 몰락양반이 광범하게 발생하고 평민 속에서는 축적된 부를 기반으로 평민부자가 성장하게 되었다. 그 결과 몰락양반과 평민부자는 각각의 현실적 이해관계나 명분이 상이함으로 하여 대결관계가 되었던 것이 당대적 현실이다. 김희집의 신분을 몰락양반으로 설정하고 몰락양반에게 있어 가장 문제적인 현실은 극심한 가난임을 드러내고 미미하

24) 신동훈, 「조선후기 야담에 나타난 재산과 신분의 관계」,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제5회 학술토론회 발표요지, 1993.

지만 몰락양반과 평민부자의 대결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동상기」가 조선후기 몰락양반이 처했던 암울한 상황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혼인으로 대표되는 몰락양반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열망과 그것을 방해하는 가난한 현실 사이의 갈등을 설정함으로써 「동상기」는 조선후기 몰락양반이 처한 문제적 현실을 드러내는데 있어서 사실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 III-2. 결말 방식에서 드러난 축제적 해결방식과 그 한계

제1절의 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갈등의 설정이 사실적인 데 비해 제3절, 제4절에서 갈등이 해결되는 방식은 지나치게 우연적이고 낙관적이다. 제3절의 도입부에서 이미 왕의 칙명으로 김희집과 신씨 처녀가 혼인하게 되었음이 공표됨으로써 표면적인 갈등은 너무나 간단히 해결되고 만다. 몰락양반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열망과 가난한 현실 사이의 갈등이라는 이면의 갈등 역시 제3절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랑 차림 살펴보세. 신랑이 어리지 않으니 가늘고 가는 양대 검은 갓이고 — 이하 신랑의 차림새에 대한 묘사 — (사살)집이 가난하면 옷 또한 남루하고 옷이 새것이면 사람 또한 새롭다오. 풍채좋은 저 사람 도포를 입으니 단아한 모습이 선비와 같구나. 관대를 띠고 나니 옷맵시가 중신처럼 휘황하네. 한 입으로 어찌 모두 말하리. 마땅히 장인 장모가 옷을 거꾸로 입고 두건을 떨어트리리라.<sup>25)</sup>

제3절은 白으로 신랑·신부·신방·잔치상 등의 차림새를 묘사한

25) 新郎服着點檢者草笠已不少了細細涼臺布笠兒 ----- (四煞)家貧服自貧  
衣新人亦新原來這個風神俊着道袍形容端妙如先輩被冠帶服色輝煌似重臣一  
口兒難盡宜丈人丈母倒着墮巾  
여기서 四煞은 曲牌名으로 사살 이전이 白이고 사살 이후가 唱에 해당한다.

뒤, 땀으로 그에 대한 감상을 노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白의 내용이 신랑·신부·신방·잔치상의 호화로운 차림새에 대한 과장된 묘사라면 창 의 내용은 그러한 과장된 호화로움과 가난했던 현실을 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하자면 신랑·신부의 호화로운 차림새에 대한 반복적 나열을 통하여 김희집의 앞에 새롭게 전개될 세계의 모습-더 이상 가난한 몰락양반이 아닌 단아한 선비의 모습-을 암시하고, 그것과 가난했던 현실을 대비시킴으로써 이제 더 이상 가난한 몰락양반이 아님을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그런데 제4절에 오면 어떤 경로를 통해 부를 획득하게 되었는지의 설명도 없이 실제로 김희집은 혼인과 함께 부를 획득하게 된다.

총각 1 : — 들으니 자네가 지금은 재산도 많고 쌀도 많아서 옛날에 죽 먹던 생애와는 천양지판이라 하니 자네는 속히 술과 안주를 마련하게.

총각 2 : (몽둥이를 던진다.)

총각 3 : (띠를 풀어 내려 놓는다.)

김희집 : (일어나 앉으며) 큰 욕이로고, 큰 욕이로고. 애야, 술집에 가서 몇 잔 소주와 좋은 안주 좀 사오너라.

아 이 : (술과 안주를 가져온다.)<sup>26)</sup>

애초 김희집은 ‘삼십일 동안에 아홉 끼니밖에 먹지 못하는’ 가난한 몰락양반이었으나, 혼인과 함께 부를 획득하게 되어 ‘술 한잔 나올 데가 없어 중매장이조차도 중매를 하려 들지 않던’ 가난은 더 이상 김희집의 현실이 아니다. 그리고 동상례라는 흥겨운 놀이마당을 통해 혼인과 함께 가난이라는 문제적 현실까지도 해소된 상황을 최

26) (大)---徐聞爾今則多米多錢與他前日沒豆粥의生涯天地相隔爾速準備酒着來者(三擲砧子科)(二解帶放下科)(金)(起坐科)大辱大辱小奚兒爾去酒家買了幾盞燒酒好個安酒來者(奚進酒着科)

대한 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작품의 전반부에서 제기되었던 극의 갈등은 첨예한 대립으로 발전하여 문제적 현실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긴장의 시점에서 갈등은 일시에 해소되어 해피엔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은 독자나 관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을 주인공과 동일시함으로써 현실적 결핍감을 상상적으로 보상받도록 하여 독자와 관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동상기」는 극적 갈등을 문제삼기 보다는 갈등을 일시에 해결함으로써 몰락양반의 염원을 실현시켜주는 데 초점이 두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갈등의 설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적 현실에 대한 비판력까지도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책이나 발전적 전망도 제시될 수 없었다. 이렇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동상기」에는 적대세력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로 인하여 대결할 대상을 갖지 못함으로써 극적 갈등이 현실적 투쟁의 대결로 발전하지 못한 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점은 「동상기」와 영향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았던 ‘동상례의 유래’ 설화가 평민 노총각의 적대세력으로 권세가의 자식들을 설정하고 둘 사이의 대결관계를 표면에 드러냄으로써 작품의 결말을 권세가에 대한 평민의 승리로 이끌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점이다. 「동상기」에도 평민부자에 대한 몰락양반의 적대적 태도가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평민부자가 구체적인 적대세력으로 전면에 부각되지는 못한다. 이는 당대의 모순된 현실에 대하여는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던 작가의식의 한계라 하겠다. 결국 「동상기」는 조선후기 몰락양반이 처했던 문제적 현실을 드러내는데 있어서는 사실성을 획득하였으나, 우연에 의지해 제시되는 해결 방식으로 하여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었고 앞서 제기되었던 문제적 현실에 대한 비판력까지도 무

화시키고 말았다. 이것이 곧 「동상기」가 획득한 의의이면서 한계일 것이다.<sup>27)</sup>

#### IV. 맺음말

「동상기」에 대한 종래의 작품론은 갈래문제·작가문제·독자성문제 등 본격적인 작품분석을 위한 예비적 검토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주제의식에 대한 논의는 극히 소략하게 되었고 독자성에 대한 탐색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져 무리한 추론이 되고 말았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하여 「동상기」의 형성과정을 내용적 측면과 언어표현적 측면의 양면에서 탐색함으로써 「동상기」의 독자적 특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동상기」는 민간설화·민간가요 등에서 소재를 얻어 사설을 이루고, 전통극의 재담적 문체와 판소리의 묘사적 문체 등 전통극의 언어표현적 특질을 수용함으로써 엮어진 작품임을 확인하였다.

「동상기」는 극적 갈등을 통해 당대의 특정한 현실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그 주제의식을 밝힘에 있어서 작가가 처했던 18세기 후반 당대의 역사적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전체 아래, 갈등의 설정과 그 해결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주제의식을 밝히고자 하였다. 「동상기」의 갈등은 혼인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몰락양반

27) 또한 등장인물들이 어느 누구도 확실한 전형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극적 갈등의 강도가 떨어지는 점도 「동상기」의 극적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과 제3절에는 주인공이 등장하지 조차 않아 주인공의 성격이 풍부하게 창조될 여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의 등장인물도 일회적으로 등장하여 사건의 진행을 돕는 정도의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한다. 그 결과 등장인물의 성격창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물간의 관계나 갈등양상도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써 「동상기」는 극적이라기보다는 서사적인 극이 되고 말았다.

의 열망과 가난한 현실 사이의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의 설정은 조선 후기 몰락양반이 처했던 문제적 현실을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동상기」는 사실성을 획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이 해결되는 방식은 지나치게 우연적이고 낭만적인데, 이러한 결말방식을 통해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몰락양반의 願望을 담을 수는 있었으나 갈등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이나 발전적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